

나무로 똑딱똑딱 ! 재미있게 배우고 탄소중립 실천하는 '목재체험교실' 신청하세요!

-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상 총 34개교 선정
- 선정된 학교에 목재 꾸러미, 교재 등 무상 지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오는 8월 30일까지 국산목재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방법을 배우는 '목재체험교실'에 참여할 희망학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목재체험교실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목재의 기능과 활용법을 익히고 목재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포함해 총 34개교이며 1개교당 최대 10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8월 30일까지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 (winz.forest.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9월 19일 이후 발표된다.

선정된 학교는 6차시에 걸쳐 목재의 탄소흡수 기능에 대한 이론교육과 국산 목재를 활용해 생활소품·가구·장난감 등을 만드는 목재체험 활동을 하며 산림청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목재 꾸러미, 교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산목재를 많이 이용할수록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책임자	과 장	조영희 (042-481-4200)
		담당자	사무관	마윤호 (042-481-8875)